

#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 맨발로(路) 청춘 찾는다

### 전국 최초 송이자갈 혼합 다짐 공법 도입 2.1km 맨발 산책로 수몰지역 내 고사된 나무 뿌리 굴채취하여 조경용 활용도

보성군이 구)국도 2.1km 구간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중앙부에 전국 최초로 송이자갈과 마사토를 혼합해 다짐하는 공법을 도입해 '송이산 맨발로(路)'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내 약취 유입과 미세먼지 차단을 목적으로 조성한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은 도시숲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산책코스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은 올해 완공했으며, △녹차밭보성향토시장·철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주민참여숲, △동운천 생태하천공원(데크길) 등을 보성읍 내 산책코스를 연결하는 순환형 산책길이다.

특히, 다양한 공법을 활용한 점과 수목 재할

용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보성군은 수몰지역 내에 있던 고사된 나무 뿌리를 굴채취하여 조경용으로 활용하고,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수목을 분양받았다. 또한 신홍동산 종합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사 활용,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목 이식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자원 낭비를 막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은 2022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성군 선종환 산림조성계장은 "주민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층 더 높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법을 구상하고 반영하여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성 아산병원 생활 환경 숲, △농공단지 기후변화 대응 숲, △특량 예당습지 주민 참여 숲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고흥군, 귀농귀촌업무 전남도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고흥군은 2022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 고흥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창의성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귀농귀촌 유치실적, 자체 독립사업 추진 실적,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노력 등 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고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흥군 귀농귀촌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 운영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공식 선포하고, 우주발사체 산업 중심도시, 드론중심 도시,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8대 핵심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담에서 정착까지 함께 하는 원스톱서비스와 귀농귀촌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형 귀농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과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고흥에서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등 다양한 정책 추진과 새로운 시책 개발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동재본부

### 정인화 광양시장, 2023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

정인화 광양시장은 12월 2일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방문해 2023년도 국비 확보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정 시장은 국고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차례 국회를 드나들며 선제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광양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우원식 예결위 위원장, 박정예결위 간사, 서동용 지역구 의원에게 미래 성장 동력 및 생활 밀착 기반사업 위주로 ▲광양항~울산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총 3,118억 원) ▲광양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억 원(총 60억 원) ▲전남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센터' 설립비 20억 원(총 250억 원) 등 국비 3,428억 원 방영을 요청했다.

정인화 시장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위한 도시 경쟁력 구축 방안에 국도비 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민선 8기 재임 기간에 지속적으로 국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여수시, 도내 최초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제공 시청 방문 없이 계약업무 가능...계약 상대방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여수시가 주로 대면으로 이뤄지는 계약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계약(회계)업무 담당자와 사업부서 감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종이 없는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직무교육(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업무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종이로 된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전자정부시스템(e호조)을 연계하고, 입찰부터 계약, 검수, 대금지급까지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문서24'를 통해 착수신고서, 기성(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 받아 종이 없는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청을 비롯해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읍면동에서 시행된다.

여수=김현근기자

### 순천시, 흑두루미 AI 면역력 강화 먹이주기 시작

순천시는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내 겨울철새 먹이 공급을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1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매년 연평균 3~4천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흑두루미 5천여 마리가 순천만으로 되돌아와 현재 1만여 마리로 증가했다.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면서 가을철 수확 시 논바닥에 뿌려 두었던 볍씨가 조기 소진되어 시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겨울



량분발 차단울타리 설치, 먹이 공급 등 철새 보호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 디이즈미 흑두루미 유입 작년보다 한 달 빨리 먹이주기 시행 철새 먹이주기, 이동량 감소 시켜 AI 확산 방지 효과 기대

철새 먹이주기를 시작한다.

시는 겨울철새 먹이주기 조기 시행이 흑두루미 등 철새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이동량을 감소시켜 AI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동지에서 흑두루미 주요 사고 원인은 농경지 내 전선에 의한 충돌이다. 순천시는 안전한 흑두루미 월동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전부터 283개를 제거하고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운영, 빛짚존치, 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번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 유입은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순천시는 겨울철새의 서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태계보호지구 내 전봇대 추가 제거,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